꿈을 알려주는 책

평소 습관 · 태도 · 특기 조합한 프로그램으로 꿈 산출(?)…

글_ 고나영(월간 〈LUXURY〉 기자)

내 꿈이 뭐지?

한 달에 2주 정도는 꼬박 촬영으로 시간을 보낸다. 인터뷰를 비롯해 각종 제품의 화보 촬영…. 이 기간 동안 잡지의 '질質'이 정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촬영기간 동안 단짝처럼 파트너가 되어 촬영을 다니는 사진가가 있다. 그녀와 함께 일한 지 벌써 4년째. 이제는 대강 눈빛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서로의 상태를 파악하는 눈치 빠른 집고양이들이 됐다.

이제 삼십 대 중반에 접어든 사진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아이를 둔 '아줌마'다. 늘 하고 싶고 것, 배우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이 많아 한시도 엉덩이를 붙일 새가 없는 바지런한 그녀다. 최근에는 1년 동안 야금야금 모아둔 비상금으로 딸과 함께 프랑스 배낭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당찬 아줌마다. 그런 그녀의 얼굴빛이 어두워 보였다.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하다.

"오늘 나랑 술 한 잔 할래요? 끔 없는 내 인생이 불쌍해서 말야."

역시 내 예감은 적중했다. 그녀에게 고민이 생긴 모양이다. 지글지글 고기가 구워지고, 어줍잖게 술잔이 오가는 와중, 그녀가 말문을 열었다.

"오늘 인터뷰 촬영이 있어서 한비야 씨를 만났지. 나와는 참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 같더라고. 본인의 신간에 친필 사인을 해줬는데, 거기에 뭐라고 쓴 줄 알아? '꿈을 이루세요.' 나보고 꿈을 이루래…. 내 꿈이 뭐지? 나영 기자는 꿈이 뭐예요?"

나 역시 말문이 막혔다. 그녀를 위로해 줄 심사로 못하는 술까지 홀짝홀짝 마시고 앉아 있었건만, 대답해 줄 도리가 없었다. 그리고는 똑같이 나에게 되물었다.

"내 꿈이 뭐지?"

확고한 꿈에 자신감까지 소유한 누군가의 삶이 탐날 때

기자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이다. 그게 기자의 가장 큰 매력일지도 모른다. 때로는 스트레스의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말이다. 최근 만난 인터뷰이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한 명 있다. 우연한 기회를 통해 서너 차례 만나게 된 그는 강남의 잘 나가는 바Bar 매니저 자리를 박차고 나와 컨설팅 회사를 차린 능력 있는 젊은이다. 내로라는 호텔의 스카웃 제의도 마다하고 택한 길. 현재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식음료 사업에 관한 컨설팅과 파티 플래닝, 음악 디렉팅 등이다. 특히 그가 원대한 꿈을 품고 있는 것은 음악 분야다. 한 달에 50장도 넘는 CD를 구입하고, 장르를 불문하고 편식 없이 음악을 듣는다. 컨설팅 사업은 '음악'에 대한 본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하는데, 그 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선 도대체 입을 열지 않는다. 다만 지금은 확고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준비작업 단계라는 것만 강조할 뿐. 안정된 직장과 명예를 포기하고, 돈과 시간을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것.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 꿈은 분명 살아가는 이유가 되고, 힘이 될 것이 분명하다.

몇 번 만난 적은 없지만 그가 내 뇌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확고한 그의 꿈이 탐나서일 게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꿈.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 게다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소유했다.

꿈 찾아주는 책?

주구장창 꿈 타령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나의 꿈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꿈'. 지식 검색에 물어도, 매달 혼신의 힘을 다해 내가 만들고 있는 잡지를 보아도 명확한 답은 없다. 심지어 꿈을 이루라는 메시지를 남긴 한비야 씨의 책에서도 그 답은 찾을 수가 없다.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오늘도 나에게 묻고 또 묻는다.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가벼운 바람에도 성난 불꽃처럼 타오르는 내 열정의 정체는 무엇

인가? 소진하고 소진했을지라도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기꺼이 쏟고 싶은 그 일은 무엇인가?"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한비아, 푸른숲)

이렇게 하염없이 질문만 던질 뿐이니 말이다. 나 역시 묻고 또 묻는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마지막 남은 열정을 기꺼이 쏟아 부을 만한 일이 있는지….'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꿈을 알려주는 책'이다. 엉뚱하고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럴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공상만화 속에서나 상상했던 유비쿼터스 세상이 도래했고, 수포로 돌아가긴 했지만 줄기세포로 인간복제까지 들먹이는 세상 아닌가.

사춘기때 뗐어야 할 고민을 이제 와서 앓고 있는 미성숙한 어른이 비단 나 뿐만은 아닐 게다(그렇게 믿고 싶다). 남은 평생을 좀더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해주는 윤활유이자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게 '꿈'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이에게 해답을 제시해 줄 책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창 호응을 얻었던 '혈액형과 유형'에 대한 분석처럼 개개인을 낱낱이 분석해 주고, 그에 맞는 꿈을 찾아 주는 것도 방법일 게다. 오히려 이런 책이라면 인터넷 도서가 더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다. 평상시 습관이나 태도, 특기 등을 클릭하기만 하면 잘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조합해서 꿈이 산출(?)되는 뭐 그런 개념이지 싶다. 그래도 책은 책장 넘기는 맛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면, 일대일 맞춤 서적 정도가 어떨까. 패션에서 말하는 '오트 쿠튀르' 개념을 책에 적용시켜 카운셀러나 최면술사와의 상담을 통해 내면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과 열정을 끄집어내고, 그에 맞는 성취 단계들을 제시해 주는 책 말이다.

앞날 향한 새로운 도전…그 도화선이 될만한 책

이렇게 얼토당토 않은 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꿈을 잊고 달려온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 때문이라 생각한다.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잡지사에 취직을 하게 됐고, 그 후로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 눈앞에 닥친 일만 바라보느라 정신이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제야 조금 마음의 여유를 찾아 앞을 내다보려 한다. 잊었던 꿈도 생각해 본다. 일을 하며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가끔씩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배아프도록 부럽고 존경스러운 사람들을 만나 자극을 받기도 한다.

어렵사리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딛고, 바쁘게 하루하루를 사는 현대인들에게 어린 시절의 꿈은 액세서리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꿈을 알려주는 책이 있다면, 그나마 바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잊었던 과거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도전을 새롭게 가다듬는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 책…. 바람대로 이루어 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에 대한 희망과 살아가야 할 이유가 점점 자리 잡아 가길 바란다. 그게 바로 꿈일 테니까.